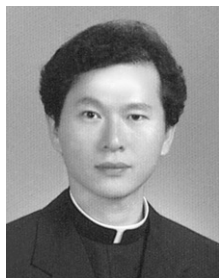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나와 같이 소금과 빛이 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박윤조 안토니오 신부
국우성당 주임



어릴 적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세우고 큰소리로 노래합니다. “나랑 같이 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 둘 모여듭니다. 놀고 싶은 친구, 심심한 친구, 낮잠 자던 친구들이 한데 모여 재미있는 놀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밥 먹을 때가 지난 줄도 모르고 신나게 뛰어놀니다.

우리 인생도 한바탕 즐거운 놀이와 같지 않습니까? ‘홀로 인생’은 재미없으니 ‘더불어 인생’을 살자고, ‘나랑 같이 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술래잡기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하고 서로를 초대합니다.

아이들이 해지는 줄도 모르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만 인생을 진지하게 산다면,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인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기 위하여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한다면, 천 길 낭떠러지 위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크게 외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나라 전하는 일,’ 그 좋은 일을 ‘당신 홀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 사랑 전하는 일,’ 그 행복한 일을 놀이하듯 즐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밥 먹을 때가 지난 줄도 모르고, 신명나게 복음을 전할 벗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벗들을 불러 모으시는 노래가 “나랑 같이 소금과 빛이 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으로 살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가 기쁘기보다는 숙제 같은 무거운 짐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나랑 같이 소금과 빛이 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고 주님께서 큰소리로 노래해도 모여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당마다 봉사자가 부족해서 힘든 현실입니다. 살맛나는 세상, 해지는 줄도 모르고 놀고 싶을 만큼 신명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소금과 빛’이 될 사람은 적습니다.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나 홀로 녹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녹는 것입니다. 나 홀로 하는 희생은 건디기 힘든 고역이지만 주님과 함께 녹고, 주님과 함께 하는 희생은 그 자체가 비할 데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나 홀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모시면 내 안에서 절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초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초대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나랑 같이 소금과 빛이 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우리 모두 ‘즐거운 소금’이 되고, ‘즐거운 빛’이 됩시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소금과 빛이 되어 즐겁게 놀다가, 하늘 고향에 가서는 더욱 신나고 즐겁게 놀시다. 하늘 고향에서는 해질 때까지 놀아도 꾸중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 참조
이사 58,7-10 1코린 2,1-5 마태 5,13-16.

16.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 8·15 민족 해방

문화홍보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마침내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점령당해 있던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았습니다. 한국 근대사 최대의 경사가 성모 승천대축일에 겹친 것을 당시 신자들은 전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성모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특별히 전구해 주신 덕분으로 믿었습니다. 전국의 성당에서는 민족 해방과 세계 평화의 회복을 감사하는 미사를 드리고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실감하기 어렵지만, 일제의 천주교 탄압은 그만큼 혹심했던 것입니다.

태평양전쟁 동안 경주본당을 비롯한 많은 성당 건물이 징발되었고 성유스티노신학교는 폐교를 당했습니다. 파리와방전교회 신부님들은 주교님을 포함해서 모두 남산본당에 집단으로 감금당했습니다. 간첩 혐의를 씌워 신부님들이나 수도자들을 체포 구금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성탄 밤 미사를 무운장구를 비는 기원제로 지낼 것과 헌금을 국방 기금으로 낼 것을 강요하는 바람에, 대구교구에서는 4년간이나 성탄 밤 미사를 봉헌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에다가 이제 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기쁨이 겹쳐, 당시 교우들로서는 민족 해방을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자 성모님의 전구 덕분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감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했을 때 한국의 어디서든 환영식이 열리지 않았지만, 오직 천주교회에서만은 임정 요인들의 귀국 환영회를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아직 정부를 수립하기도 전인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나라는 교황님이 계신 바티칸이었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외교 사절을 파견한 나라도 바티칸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직도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가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이 세계 어디를 가도 쉽게 무시당하지 않지만, 착취를 당하는 민족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억눌리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편드십니다. 이제는 한국이 외국인들이 일하러 오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돈 좀 있고 힘이 생겼다고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깔보고 내리누르는 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에 입은 은덕을 갚을 생각을 해야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탈출23,9)

알고 보니

박성규 엘리자이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5주일

입당성가

57 우리는 목장의 백성이로세

화답송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5 사랑의 하느님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
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
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파견성가

421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영성의 향기

:: 묵상기도

묵상기도라고 하면 거창하고 어려운 기도로 여
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누구든지 마음이 있
으면 할 수 있고 또 신자라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인
데, 성경 말씀이나 계명의 도리를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을 바칠 때, 기도
문의 말씀에 담긴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술만 달작거린다
면 제대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도 목소리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늘 입으로 외는 익숙한
기도를 하면서 묵상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
니다. 잠깐 잊어버렸다가도 또 생각이 나서, 이걸 어찌지, 무슨
수가 없나, 하고 되풀이합니다. 걱정거리 대신 복음서의 구절이
나 강론 때 들은 좋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자꾸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묵상기도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거나 강론 테이프
를 들을 때 지나쳐듣지 말 일입니다. 묵상의 재료를 주님께서 골
라주시는 줄로 생각하고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길게 하기가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 온
종일 묵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
라도, 별 소용없는 잡생각이나 공상 대신에 거룩한 생각을 하루
에 단 몇 분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기본에 충실하기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에게 한 기자가 그 대단한 기교의 비결을 물었더니 정경화씨
가 곱을 버럭 내면서 쓰아붙이기를: “비결이요? 제가 그런 걸 알았으면 일 년 365일,
하루에 여덟 시간씩 손이 짓무르도록 연습을 하겠어요?” 할매곰탕으로 유명했던 박소
선 할머니에게 그 국물 맛의 비결을 물었던 사람도 비슷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비결이
뭐 있어? 고기 많이 넣으면 맛있지.” 값지고 보람된 일은 보통 요령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요령 피우는 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 율겨은 글입니다 -

- 행사 / 모임 -

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일시: 2.9(수) 14:00, 가톨릭 교육원

제1회 대구대교구 병자들을 위한 봉사자의 날

일시: 2.11(금) 14:00, 교구청내 교육원 강당

미사집전: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문의: 교구병원 사목담당, 250-3085

떼제기도회

일시: 2.12(토) 20:00, 삼덕 젊은이성당

- 성소 / 피정 -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일시: 2.11(금) 18:00~13(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 (무료숙식제공)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 홈페이지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섭리기도모임(미혼여성)

일시: 2.13(일) 14:00

장소: 성당동성당 수녀원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6-645-8851

- 모집 / 교육 -

어버이성경 평생교육원생 모집

접수기간: 1.1(토)~2.22(화), 성서교육관

월요일: 10:00~12:30, 19:30~21:30(루가복음, 시편)

거룩한독서반: 수.목요일(10:00~12:30, 요한복음)

대상: 어버이성경학교 졸업자, 동등자

문의: 815-1114 / (010)4910-4627

2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2.1(화)10:00~12:00, 월 2만원

과정: 화-코린토2, 신명, 목-마태, 창세

문의: 관덕정, 254-0151 / (010)2578-5535

시편성가연수(S.김정선,발성법(박재연)회비:1만원

일시: 2.6(일) 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대구가톨릭대학교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기간: 2.7(월)~18(금), 개강: 3.2(수)

과정: 학점은행제(사회복지, 아동,

음악전공), 음악원, 일반과정

문의: 526-3413~5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 나는 성경공부' 봉사자 교육

일시: 신약편 2.14(월)~16(수), 삼덕성당강당

사도행전~요한묵시록 2.21(월)~23(수)

시간: 13:00~18:00, 회비: 4만5천원(교재, 간식제공)

문의 및 접수: 425-5185 / (010)2990-5185

틴스타 성교육 지도자과정 워크숍

일시: 2.15(화)~18(금) 09:00~17: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신청: 2.7(월)까지

문의: 250-3066 / (010)3823-9007

새빛학교 국어·영어반 모집

한글국어반 접수: 2.17(목)까지

성인ABC영어반 개강: 3.10(목)

문의: 새빛학교, 476-3100 (교대역 3번출구)

로고스 말씀가족 창세기(성인반) 겨울연수

일시: 2.18(금)~20(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사수동)

회비: 10만원, 선착순: 55명

문의: 성서사도직 담당, 250-3082

제17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문의: 641-5678 (2.19일부터)

성체신심세미나 (010-5493-1819)

일시: 2.21(월)~23(수), 한티교정의집

내용: 성체현시, 조배, 참회예절, 성사, 안수

강사신부: 이홍근(바오로), 하성호(사도요한),

송재준(마르코), 서덕교(야고보), 정기모(요한보스코)

주관: 대구대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

9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기간: 2차 2.26(토) 출발(8주, 12주)

3차 3.26(토) 출발(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593-1273

이곡성서대학-신구약성서듣기 나누기

개강: 2.22(화), 24(목)

내용: 일반성서듣기 오전반 (매주 목10:30)

일반성서듣기 저녁반 (매주 목20:00)

청년성서나누기반 (매주 화20:00)

문의: 이곡성당, 584-7744

선교후원 시그마코스 16기

일시: 3.11(금)~13(일), 회비: 16만원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 피정의 집

문의: 미래사목연구소, (031)985-2835

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 (8주간)

일시: 3.1(화) 19:00~21:00 저녁반(8주간)

3.3(목) 10:00~12:00 오전반(8주간)

장소: SPC 에니어그램 연구소 (401호)

문의: 254-2664 / 659-3455-6

cafe.daum.net/spc1009 참고

주부들을 위한 내적여정 (794-6022)

일시: 3.8(화)~4.12(화) 5주간

에니어그램1단계

일시: 3.9(수)~30(수) 4주간

대상관계 부모 교육(행동편)

일시: 3.7(월)~4.25(월)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2월 7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가톨릭교단 월례미사	2월 8일(화) 오후 2시	성모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7일(월) 오전 11시	성동프리텔 413호	한국SOS어린이마을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2월 9일(수) 오전 11시 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2층 강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7일(월) 오전 11시	신광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2월 10일(목) 오후 2시	성모당
꾸르실리스타 월례미사	2월 7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로 교육관	미사회 미사	2월 11일(금) 오후 2시	성모당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 재혼)

전국대표 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5~8

서울 -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iFS-아이라식, 알티산, 백내장수술

의 학 박 사 원장 박 중 원 (소시모)

현 연세대의료교수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 626-8881~5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상담소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정귀선 (호노리아)

소아 난치병 전문 한의원 / Since 1999

성모아한의원

www.sungmoj.com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 난치성 이토피

· 연어발달장애, 지체

· 식욕부진, 성장, 아노증

한의학 박사 김 성 철 (비오)

동국대 한의학과 외래교수 ☎ 592-1275, 593-1275

근본치료

수맥 흙(돌)침대

대표전화: 1588-5335

21주년 공장직판

수맥지도 임 응 승 신부님

애플비노기과

www.appleuro.com

비노기과 원장 강 일 (베드로)

전문의 이영국 (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 (레이저수술, 암검진)

오로결석클리닉 (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백 신경외과 의원

추추·관절염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 진전

○ 요통, 좌골신경통, 목 · 허리디스크, 골다공증

○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군 · 골격질환

원장/전문의 백 윤 일 (스테파노)

성당시장 네거리 628-4111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 청과, 야채, 선어, 정육

* 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

*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맞은편)

대표이사장영 일 (그라산도)신부